

취임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

2019. 7. 1.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46만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지나, 2019년의 반환점인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한 지난 1년 동안 민선7기 시정비전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취임 후부터, 행정공백 기간에 미루어 왔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의사 결정과 갈등을 해소하며, 탈 권위와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제3기 신도시 지정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움도 있는 반면,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농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취임 시 약속 드렸던 공약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 수립으로 자치단체 「공약실천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4월에는, 통일동산 일원 300만㎡(약91만평)가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로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통일동산지구 조성이 발표 된지 2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CJ ENM, 임진각 생태평화 관광센터, 임진나루 거북선 복원 등 앞으로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한반도 평화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의 최대 현안이자 46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GTX-A노선의 착공을 비롯하여 교하지역 광역급행 및 직행좌석버스 노선이 신설·확정되는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소외지역에는 천원택시를 운행하는 등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운정신도시 공공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운정 출장민원실을 개소하였으며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를 착공하였고, 월릉면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를 건립 착수하였고, 금촌 실내체육관, 조리배드민턴장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보장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온돌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식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고 배려와 편견이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

지난 1년이 민선7기의 기초를 다진 한해였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취임사에서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시정운영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첨단산업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통일경제특구지정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개성시와 농업·스포츠교류 등을 추진하고 이이선생 유적지가 있는 해주와 생태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여건에 맞는 균형발전을 통하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은 명품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운정역 주변에 주거와 상업, 문화, 여가 생활을 선도하는 운정신도시의 랜드 마크를 조성하고 종합병원 및 첨단산업 유치는 물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GTX 운정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대규모 광장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지정과 함께 콘텐츠 제작과 체험 그리고 관광이 결합된 「CJ ENM콘텐츠 월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정호수와 자연생태 하천인 소리천과 공릉천을 연계하고 아름답고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도심인 금촌·문산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도심 재정비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연풍리 창조문화프로젝트, 법원읍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마을공동체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역별 역사, 전통, 문화, 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파주형 마을살리기’를 추진함으로써 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차로 읍면단위의 ‘미관팀’을 ‘마을살리기 팀’으로 바꾸고 이번 정기 인사에서 팀장을 공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등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자족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조리읍 캠프하우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을 취소하고 재 추진 중이며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캠프스탠턴 등 미개발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도 53개 기업으로부터 개발의향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적격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성사업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여 북파주 지역과 운정신도시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후관 교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을 전면 확대 공급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6.2%로 높여 하천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로변, 벽면, 옥상, 하천, 유희지 등에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북지역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농업용 드론 지원, 농기계임대 등 농업기반을 현대화하여 파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3호선(일산선) 파주연장을 빠른 시일 내 꼭 실현하고 대곡~소사선 파주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조리·금촌선 연장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신도시~성석간도로, 과선교 연결도로 등을 개설 및 확·포장하여 만성화 되어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버스노선체계 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감은 물론 도심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역사·문화·예술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지정,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임진강 거북선 복원, 리비교 관광 자원화사업 등의 자원개발을 통하여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문화·역사·예술·자연 등을 콘텐츠로 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구술 채록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효율적인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생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정적 지원과 민간지원 일자리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통시장 특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 6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적극 활용,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사병 평일 외출제도 또한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관·민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파주온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하고,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2020년부터 연 20만원을 지급하여 국가 유공자 예우를 높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2021년까지 32개소를 확충하고 민간보육 어린이집의 냉난방비와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를 실현하여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 파주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도에는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민선 2년차부터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도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저는 민선7기 남은기간 동안 더 집중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